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2018년 10월 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 4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10. 4.(목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김재준 과장(044-203-4080)	담 당 자	장원 사무관(044-203-4086)

2018년 3분기(누적)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'18. 10. 4(목) 배포 -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ㅇ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의 외국인투자통계 및 외국인직접투자 연구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**2018년 3분기**(1.1 ~ 9.30)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

ㅇ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**9월 30일까지의 실적 잠정치를**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 **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**함

ㅇ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**매분기마다 발표**되며, '18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**'19년 1월 중순경 발표예정**

2018년 3분기(누적)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외국인직접투자 "4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" 가시권에 들어

- 신고 192.0억 달러 (+41.4%), 도착 117.1억 달러 (+31.9%) -

- 3분기 누적기준으로 "역대 최대실적" 달성 -

Ⅰ. 종합

◈ '18년 3분기(누적) 외국인직접투자는 **신고기준**으로 전년동기대비 41.4% 증가한 **192.0억 달러**, **도착기준**으로는 31.9% 증가한 **117.1억 달러**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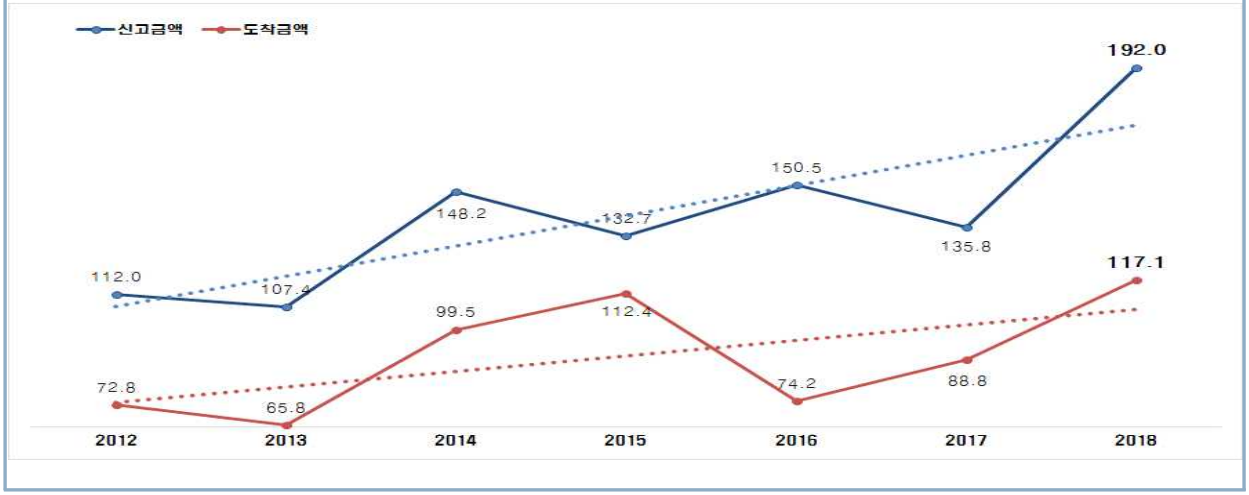
◈ '18년 상반기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, **역대 최대실적 달성**에 성공하여 외국인투자의 장기 **상승추세**를 견고하게 **유지**

□ 이러한 실적은 신**보호무역주의 확산, 미국 금리 인상** 등 대외적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**외국인투자의 상승 국면전환을 유지**한 것으로 평가

○ 특히, ❶외국투자자에게 한국이 **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인식***을 확고히 하고, ❷남북·북미간 대화를 통한 **지정학적 위험 완화**, ❸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**우리 주력산업 분야의 가치사슬(밸류체인)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 증대**, ❹바이오, 디지털콘텐츠, 모바일금융, 전자상거래 등 **새로운 투자기회가 창출**된 것이 상승세 유지의 주요 요인임

* 광범위한 FTA 플랫폼, 우수한 R&D인력 보유, 글로벌 최고수준의 기업 보유 등

3분기(누적) 외국인직접투자 (단위: 억 달러)



Ⅱ. 세부 동향

※ 금액·비중은 '18년 1~3분기 누적기준이며, 전년동기와 비교한 수치임

1 국가별 동향

◈ (상승세) **유럽연합(EU), 미국, 중국**은 큰 폭의 **상승세** 시현

◈ (감소세) **일본**은 상반기까지의 상승추세에서 **감소세**로 전환

1 **(유럽연합(EU), 전체 외투의 26.7%)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고른 성장세**를 보이며 증가세를 시현(51.3억 달러, 63.1%증가)

○ **제조업** 부문에서는 **운송용 기계**(2.4억 달러 → 19.9억 달러), **전기·전자**(1.8억 달러 → 5.5억 달러)가 증가세를 주도

○ **서비스업** 부문에서는 **금융·보험**(7.2억 달러 → 9.7억 달러), **유통**(1.9억 달러 → 7.0억 달러), **레저**(0.03억 달러 → 5.2억 달러)가 증가세를 주도

EU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(FDI) 주요사례

▲ (**금융보험**) 국내 생명보험사 지분투자를 통해 브랜드 강화, 고객친화, 변화선도 등 선진 경영 추진
▲ (**레저**) 국내 유명 관광지의 호텔·복합 리조트 등 휴양단지 개발사업에 참여

2 **(미국, 전체 외투의 21.3%)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년대비 증가**(40.9억 달러, 41.0%증가)

○ **제조업** 부문에서는 **화공**(바이오 포함)(3.2억 달러 → 7.5억 달러), **운송용 기계**(5.0억 달러 → 5.1억 달러), 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0.09억 달러 → 2.7억 달러)이 증가세 주도

○ **서비스업** 부문에서는 **정보통신**(2.2억 달러 → 10.4억 달러), **지역개발·부동산임대**(2.9억 달러 → 6.7억 달러), **금융·보험**(1.8억 달러 → 2.9억 달러), **유통**(1.0억 달러 → 3.1억 달러)이 증가세 주도

미국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(FDI) 주요사례

▲ (**화공**) 바이오시밀러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의약품 생산기지 건설에 투자
▲ (**정보통신**)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, 지급·결제 SW 개발

3 **(중국, 전체 외투의 12.4%)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년대비 대폭 증가**(23.9억 달러, 292.7%증가)

○ **제조업** 부문에서는 **전기전자**(0.2억 달러 → 2.0억 달러), 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0.05억 달러 → 1.7억 달러), **금속**(0.02억 달러 → 1.4억 달러)이 증가세 주도

○ **서비스업** 부문에서는 **지역개발·부동산임대**(0.4억 달러 → 8.0억 달러), **금융·보험**(0.02억 달러 → 5.8억 달러), **운수·창고**(0.01억 달러 → 1.0억 달러)가 증가세 주도

중국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(FDI) 주요사례

▲ **(전기전자)** 국내 2차전지 생산 대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기 위한 旣투자기업의 증액투자
▲ **(금속)** 반도체·2차전지 활황에 따라 코발트 등 관련 금속 가공산업에 외투유입

4 **(일본, 전체 외투의 5.0%)** 대규모 장치산업인 **화공·전기전자 분야**의 대내외 과잉설비 우려에 따른 **투자 축소**로 감소세로 전환(9.7억 달러, 42.6%감소)

○ **제조업** 부문에서는 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0.2억 달러 → 0.8억 달러)은 소폭 증가한 반면, **화공**(2.5억 달러 → 0.6억 달러), **전기전자**(2.2억 달러 → 1.3억 달러)는 큰 폭으로 감소

○ **서비스업** 부문에서는 **정보통신**(1.4억 달러 → 1.7억 달러), **금융·보험**(1.1억 달러 → 1.0억 달러)은 소폭 상승·보합세인 반면, **유통**(1.0억 달러 → 0.9억 달러), **지역개발·부동산임대**(3.0억 달러 → 0.2억 달러)는 감소세를 보임

일본발(發) 외국인직접투자(FDI) 주요사례

▲ **(정보통신)** 양국 웹툰 플랫폼을 결합해 결제시스템 공유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
▲ **(유통)** 대형 도·소매(유통)기업이 국내 중소 면세사업자와 손잡고 한국의 면세점 시장에 진출

2 업종별 동향

1 **(제조업 투자, 전체 외투의 43.6%)** 우리의 **주력산업**(운송용기계, 화공, 전기전자 등)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**기술력 있는 한국 기업과의 국제 가치사슬(밸류체인) 구축**을 위한 투자 확대로 대폭 증가(83.8억 달러, 101.7%증가)

○ **운송용기계**(7.9억 달러 → 50.8억 달러), **전기·전자**(6.8억 달러 → 9.4억 달러), 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2.6억 달러 → 7.0억 달러)은 증가한 반면, **화공**(11.3억 달러 → 10.7억 달러), **금속**(5.0억 달러 → 1.9억 달러), **의약**(3.5억 달러 → 0.1억 달러)은 감소세를 보임

○ 주요 특징은 경쟁력 있는 **국내기업**(완제품)과 **외국기업**(소재·운영기술 등)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**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**가 활발해지고 있음

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(FDI) 주요사례

▲ **(화공)** 반도체·디스플레이 완제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특수가스 공급
▲ **(의료기기)** 국내기업과 의료용 정밀기기 R&D개발 후 상용화를 위해 국내 증액 투자
▲ **(전기전자)** 광학렌즈 전문기업이 한류콘텐츠 VR 제조 등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

2 **(서비스업 투자, 전체 외투의 56.4%) 금융·보험, 지역개발·부동산임대** 분야 투자의 꾸준한 증가세와 더 달러어 **정보통신, 물류·유통** 분야의 상승추세 유지(106.4억 달러, 14.6%증가)

○ 전통적인 투자분야인 **금융·보험**(28.8억 달러 → 30.1억 달러), **지역개발·부동산임대**(20.9억 달러 → 26.7억 달러)외에 클라우딩, 사물인터넷(IoT), 모바일 소프트웨어(SW)를 중심으로 **정보통신**(9.4억 달러 → 20.4억 달러) 투자와 **물류·유통**(8.4억 달러 → 14.3억 달러) 분야의 투자가 대폭으로 증가

○ 주요 특징은 외국 투자가들은 우리의 정보기술(IT)인프라를 높이 평가하며,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(**O2O:** Online to Offline)·**전자상거래·클라우딩·블록체인** 기술을 활용한 **모바일 금융 등 새로운 분야 투자가 확대**되고 있음

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(FDI) 주요사례

▲ **(디지털콘텐츠)** 국내 유명 게임회사 지분인수로 북미·중국 판권 확보와 e-스포츠 시장에 참여
▲ **(지식재산권)** 국내 웹소설 연재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물 저작권에 대한 지분 투자
▲ **(금융보험)** 보험판매 방식 선진화(설계사→온라인 중심)와 사업재편을 위한 외투 유입

3 유형별 동향

1 **(그린필드형 투자, 전체 외투의 77.1%)** 제조업(30.4억 달러 → 60.3억 달러)과 서비스업(77.1억 달러 → 86.7억 달러) 모두 증가(148.8억 달러, 37.9%증가)

2 **(인수합병(M&A)형 투자, 전체 외투의 22.9%)** 제조업(11.1억 달러 → 23.5억 달러)과 서비스업(15.8억 달러 → 19.7억 달러) 고르게 증가(43.2억 달러, 54.7%증가)

Ⅲ. 향후 투자유지 여건 및 정책방향

1 투자유지 여건

□ **(세계)** 국제 **보호무역주의 확산, 한·미간 금리격차 확대** 등 세계경제의 달러 확실성 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**외국인직접투자 여건은 녹록하지 않은 상황**

○ 다만, **세계경기의 회복세가 뚜렷**하며, 신산업 중심으로 **4차산업혁명**에 대응하는 각국의 **전략적 투자는 증가세를 보일 것**으로 전망

□ **(국내)** 한반도의 **지정학적 리스크 완화, 수출** 5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, 역대 최고수준의 **국가신용등급** 유지*, 반도체·석유화학 등 **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활황** 등 **한국경제의 긍정적 투자환경** 지속

* Moody's('15.12.19): Aa2, Stable / S&P('16.8.8): AA, Stable / Fitch('12.9.6): AA-, Stable

○ 그러나, 한편으로는 **국내기업의 설비투자 감소, 고용회복 지연 등 우리경제에 대한 달러 확실성도 확대**

2 정책방향

□ **외국인투자 증가세 유지를 위한 역량 집중**

○ "4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"은 물론 **역대 최대실적**('17년 229억 달러) **초과 달성**을 위해 정부·지자체·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**총력대응 추진**

○ ‘18년 4분기 **유럽, 중국** 등을 대상으로 **맞춤형 통합 투자유치설명회(IR)를 개최**하고, 감소 추세에 있는 **일본**으로부터 투자 확대를 위해 **고위급 회담** 등을 적극 활용

○ ‘18년 **“외국인투자주간(11.6~8)”** 계기 투자가 라운드테이블, 1:1 상담회 등을 통해 다수의 **유망 프로젝트를 발굴**하여 **전담관리시스템*을 구축**하여 한국투자 확대의 기반을 마련

* 정부·지자체·코트라 등 유관기관 프로젝트 매니저를 활용, 유망 프로젝트 밀착 지원

□ 4차 산업혁명의 효과적 대응, 양질의 고용창출 등 **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*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성화**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

* 국가기업 전체 매출의 12.0%, 고용의 5.7%, 수출의 20.2%, 연구개발(제조업)의 6.0%를 차지(‘16년 기준)

○ 현재 추진중인 **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***을 통해 기술력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할 수 있는 기반 구축

* 조세감면 제도 정비, 세액공제·현금지원 확대, 외촉펀드 결성(10월중) 등

○ 분기별로 지역소재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**“외투 카라반*”**을 개최하여 ①**투자애로 사항 발굴·해소**, ②글로벌 수준의 **기업·정주여건 조성**에 주력

* 험난한 사막을 오고가는 대상(隊商)을 의미하는 카라반을 차용해 지역소재 외투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지방순회 투자유치활동 (창원(5월), 대전(8월) 旣개최 / 10월 대구, 12월 호남권 예정)

【붙 임】 1. 2018년 3분기(누적)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 1부. 끝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장원 사무관(☎ 044-203-40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